

한국 정유산업의 성장과정



-석유헌회 홍보실-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은 지난 1964년 대한석유공사의 울산정유공장이 가동을 개시한 이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정제능력이 당초의 3만 5천B/D에서 무려 55.8배가 증가한 167만5천B/D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국내 정유회사수도 5개로 늘어났고, 각종 석유제품이 모든 산업의 동력원이나 원료로 이용되면서 정유산업은 석유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누군가 「20세기의 인류문명사는 석유로 쓰여졌다」고 했다. 이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석유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열효율이 높고, 취급이 간편하며, 공업용 기초에너지라는 점때문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主宗에너지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유산업 30년을 앞두고, 정유사별로 성장과정을 되돌아 본다.

〈편집자註〉

유 공

선경그룹의 주력회사인 유공은 1962년 국영기업인 대한석유공사로 출발,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로서 국가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며, 주요 산업원료 프로필렌, BTX 등 석유화학의 기초유분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서 업계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경영권이 국제적인 석유 메이저인 미국의 걸프사로 넘어간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맞게 되고, 국내 후발 정유사의 출현으로 독점공급자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자 전적으로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기초유분 사업에 의존하고 있던 유공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변革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0년 선경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민간기업으로 새로이 탄생한 유공은 기존의 한정된 사업영역을 탈피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매년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기업변신을 추진하여 현재는 매출액 4조7천여억원을 달성하는 세계일류수준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1980년 「종합에너지·종합화학 기업」을 기업성장 목표로 설정한 유공은 '80년대 초반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여 '80년대엔 북예멘 마리브광구에서 2개의 대규모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해외 유연탄의 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유공은 또한 1985년에 LPG수입·공급회사인 유공가스를 설립하였고, '80년대 후반에는 구미, 청주, 포항지역의 도시가스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서울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한도시가스의 지분(50%)을 인수하였으며, 1992년에는 청주에 천안 등 중부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를 설립, 가스 관련 사업에도 참여하여 종합에너지사업의 기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사업의 다각화는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유전개발사업은 「탐사성공률 세계최고」라는 목표하에 매년 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유공은 이미 1989년 미얀마에서 단독 탐사·개발권을 획득하면서 세계 석유메이저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유공은 이와같은 신규 에너지사업 진출뿐만 아니라, 39%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정유사업 분야에서도 정제설비 증설, 증질유 분해시설 건설을 통해 양질의 석유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뿐 아니라 탈황시설의 건설, 기술혁신등을 통해 품질개선과 공해방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공은 이와 같은 종합에너지 사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수요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운환유사업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일산 2천5백만 배럴의 운환유 생산시설과 연산 6천톤의 그리이스 생산능력을 갖추고 운환유 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유공상표 자체개발 강화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석탄사업 분야에서는 트레이딩 사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해외 유망탄광의 개발,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자체 매장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스사업도 사업 규모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신·재생 에너지시대에 대비한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기존 기초유분 생산설비 증설과 함께 신규화학사업분야에의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중간유도품 분야에 있어서는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는 P-X 제조시설을 1990년초 완공함으로써 「원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선경그룹의 숙원을 실현하였고, 1989년말에는 MTBE/Butene-1 제조시설, 1990년초에는 제2사이클렉산 제조시설 등을 완공하였으며, 유공 옥시세미칼 주식회사를 설립, 1991년 PO/SM 병산공장을 설립하였다.

유공은 1990년 8월 가동한 PE/PP 제조시설과 일본 스미토모社와 합작으로 추진, 1992년 9월 가동을 시작한 EPDM 제조시설을 통해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사업분야에도 진출하였으며, 특히 합성수지사업은 새로운 주력사업으로서 범용수지 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유공은 첨단 소재인 PPAM의 제조·판매를 위해 1991년 미국의 HIMONT와 합작으로 유공 HIMONT를 설립하였다.

유공의 화학사업은 현재의 BULK CHEMICAL 위주

의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인 정밀화학, 고분자화학, 신소재 등 고도의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공은 연구개발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진기술선과 합작사업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공은 사업영역을 종합에너지·종합화학사업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사업 등 미래 유망사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미국에 정보통신 관련회사인 YUKRONICS INC. 를 '89년에 설립하였으며, 1990년 10월에는 (주) 와이씨 앤 씨(YUKONG COMPUTER & COMMUNICATIONS LTD.)를 설립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본격 참여했으며, 1992년에는 테네시 RSA #6B사의 지분을 인수, 미국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또한 유공은 1993년 석유부문 부가 가치통신망인 OIL-VAN사업에 본격 참여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사업 및 시스템 통합사업인 SI(SYSTEM INTEGRATION)사업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

유공은 사업영역을 국내로 국한하지 않고 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 일류 수준의 회사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기업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공에라스터 등 외국 기술선과의 국내합작회사 설립뿐 아니라 이탈리아 에니켄社,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와 3자 합작으로 홍콩 페트로케미컬社를 설립, 1992년 12월 PS공장 준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美INTERNATIONAL FINANCE社 등과 4자합작으로 중국심천에 태양전지제조공장을 건설, 태양전지 시제품을 시험생산중이며, 정보 통신회사인 美 UNIDATA社, 테네시 RSA #6B社 지분을 인수하는 등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또한 유공은 국제화 전초기지로서 기존 미국지사 외에 1989년 싱가포르 사무소를 설립, 1990년 현지법인으로 승격시켰으며, 1990년 일본에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1991년에는 중동사무소와 런던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유공은 현재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유망신규사업의 조인트벤처, 해외기업 M&A(Merger & Acquisition)를 통해 해외 사업망 확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화 2단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활발한 수직계열화, 업종다변화를 위하여 유공은 1987년 이후 막대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설비건설이 필요한 정유 및 석유화학 사업의 특성에 따라 1987년~'89년간 1조1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한편 1990~'93년간에도 방대한 투자를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유공의 매출액도 1992년 4조4천억원에서 1995년에는 7조5천억원, 2000년에는 20조원 규모로 대폭 증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공은 미주 동부 R & D 센터를 설립하여 선진 기술연구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 울산연구소와 인천 고분자연구소 이외에 대덕 종합연구소를 건설중에 있다. 유공이 그룹공동으로 2000년까지 약 10만평의 대지위에 2천5백억원을 투입하여 설립하게 될 이 연구소는 첨단기술 화학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보·통신사업 등 미래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1991년 「자연과 인간의 미래를 생각합니다」를 기업의 서브 슬로건으로 제정한 바 있는 유공은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등경유 탈황시설, 종합폐수처리장, 종합소각로, 제3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였으며, 1991년 8월부터 1992년 5월까지 국내외 유수의 환경진단업체에 의뢰, 환경관리 각 분야별로 정밀 진단을 실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2000년까지의 환경관리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유공 환경관리 마스터 플랜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유공은 1994년까지 2000년 국내 예상법적규제치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환경관리를, 그리고 2000년에는 총량규제시 적용되는 선진국의 환경관리기준을 앞서 는 수준의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공은 21세기 세계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기존의 SKMS(선경경영관리체계)의 활용 극대화뿐만 아니라, 이의 실천도구로서 SUPEX추구활동을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SUPEX(Super Excellent)란 「개인이나 조직이 일을 하는데 있어,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찾아내어 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유공은 이 SUPEX 추구를 통하여 장기 기업성장목표 및 전략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호남정유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정부에서는식량의자급, 중화학공업의 육성, 7억달러 수출, 고용증대, 기술향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1967년 발표하였다. 본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2 정유공장의 건설, 나프타분해센터의 건설에서 PVC, PE, 아크로니트릴공장에 이르는 석유화학단지의 조성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60년이후 호남정유 여천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1967년까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증가율에 발맞출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에도 주력해야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제2정유 공장건설의 실수요자를 공모하였다. 그런데, 력키는 정부의 공모에 앞서 신규확장사업분야를 모색하던중 정유업내지 석유화학사업에 이미 관심을 가졌으며, 구평희상무(당시)를 중심으로 한 력키개발팀은 정유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마쳐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6년 11월 정부로부터 실수요자로 선정되어 칼텍스와 합작으로 일당 원유정제능력 6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1967년 5월 18일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 사장으로 구인회선대회장을 선임하여 다음날 설립등기를 마쳤으니 지금부터 26년전의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회사 설립의 의미를 떠나 민간기업체가 국가 에너지사업에 적극참여하게 됨으로써 향후 한국경제의 자생력을 암시하는 신호탄이었다.

1968년 4월 착공에 들어가 상압증류탑등 한갓 첫덩이에 불과하던 기계들이 박동하기 시작한 날은 다음해인 1969년 3월 15일이었다. 하루 6만배럴의 원유를 투입하여 6,390배럴의 휘발유를 비롯하여 22,440배럴의 B-C유에 이르기까지 도합 57,754배럴의 제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석유산업의 새 장을 열었다.

이후 회사는 경제발전에 따른 유류수요증가에 발맞추어 정제시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 1970년 10월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일산 10만배럴 정제규모로 확대했으며, 탈염시설도 함께 건설했다.

1972년 10월에 일산 6만배럴 규모의 제2공정시설의 증설을 회사자체기술로 주관 완료한 2차 확장공사는 1972년 10월에 이루어졌으며, 1978년 3차 확장공사는 세부설계를 국내의 모든 엔지니어링 회사에 분산 의뢰하여 국내기술 축적에 기여하면서 총 원유정제 능력은 23만배럴로 늘어났다.

하루 원유정제능력 38만배럴로 끌어올려 호남정유를 일약 국내최대의 정유회사로 만들어 낸 제4차 확장공사는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수요예측속에서 내려진 결단의 산물이었다. 원유정제능력 15만배럴 증설, 제2 LPG 공정시설증설, 아스팔트공정시설 확장, 인천 LPG시설 신설, 원유부두건설, 쌍봉사택 건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본사업은 1979년 4월에서 1981년 4월까지 만 2년이 소요된 호남정유 최대의 役事였다.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호남정유는 국내 최대는 물론 당시 세계 20위 안에 드는 대규모 단위 공장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1969년 여천공장의 첫가동으로부터 불과 12년 사이에 6배가 넘는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호남정유는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원유도입선 다변화정책 및 저유황제품공급 계획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원유수송은 가동초기에는 외국선박에만 의존하였으나 1972년 호남탱카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국적선에 의한 수송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호남필」호를 비롯한6척(총1,278,775DWT)의 원유수송선을 보유하여 원유수송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

1992년 7월 준공된 제2원유부두는 28만5천톤규모의 유조선 접안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1981년 완공된 제1원유부두를 포함하여 총 54만톤 접안능력을 갖추어 원활한 원유하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천공장은 분리·정제·전환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길이 900m, 최대 3만5천톤급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품출하 부두, 16만톤급 제품 유조선 접안이 가능한 원유부두의 제품 하화시설, 접안능력 6천 DWT의 LPG 전용 출하 부두를 통해 해상 출하하고 있다. 또한 철도시설과 전용화차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160~170량의 각종 유류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천공단에 나프타, B-C유, 경유 등을 각 공장과 직접 연결된 송유관을 통해 출하하고 있다. 전국 각지를 누비는 탱크트럭 역시 제품수송

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건설된 경인승유관은 최대수요처인 수도권권의 적기공급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승유관 참여를 통해 수급안정에 국내 힘을 보태고 있다.

호남정유의 임직원들은 가정에서부터 각종 생산업체, 건설현장, 자동차, 철도, 항공 그리고 선박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의 고객들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자 모든 정성을 쏟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이 원하는 석유제품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지사와 영업소를 두고, 1,500여개에 달하는 주유소 및 200여개 LPG 충전소를 통해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호남정유는 공장과 일선판매점을 연결하는 저유시설을 통해 제품이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소비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인천과 부산의 초대형저유소를 비롯하여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청주 등 전국 각지에 25개의 저유소를 두어, 전국 어디에나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다. 1992년부터 업계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한 고객서비스팀은 고객의 불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처리하는 고객중심의 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호남정유가 추구하는 목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 및 석유화학기업이 되는 것이다. 1969년 건설된 율령유공장에서는 칼텍스와 기술 제휴를 통해 최고급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부터 산업용, 해상용 율령유 등 120여종에 달하는 각종 율령유 및 그리이스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86년에는 최신 자동공정의 그리이스공장을 완공하여 다양한 용도의 고급그리이스를 양산하고 있으며, 1988년 8월 국내 최초로 SG급 가솔린 엔진오일을 생산하여 고품질 율령유시대를 열어놓았으며, 1991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로 기존의 SG급과 CF급에서 진일보한 최고급 엔진오일 「슈퍼립 디럭스」 「슈퍼 다이내믹」을 생산하여 호남정유의 앞서가는 기술을 과시하였다. 또한 고객의 적절한 율령유 선택과 관리를 돕기 위해 율령유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완벽한 대고객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유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평·수직적 사업다각

화를 통한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첫걸음은 P.P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1988년 11월 연산 16만5천톤 규모의 P.P 공장건설에 착공, 1987년 12월 생산효율이 탁월하고 제품의 품질이 우수한 유니폴공법의 공장이 고고성을 올린 이후 다양한 Grade의 양질의 P.P 제품「하이프린」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합작투자로 설립한 삼남석유화학의 연산 20만톤 규모 여천 TPA 공장이 1990년 3월 상업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순조로운 향진을 하고 있으며 나프타를 분해하여 벤젠, 톨루엔, 자일렌,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연 60만톤 생산규모의 BTX공장도 1990년 6월 완공하여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경질유종의 수요증가에 대비 중질유 분해를 위한 5만배럴 규모의 중질유 분해시설과 4만배럴 규모의 탈황시설을 1994년초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호남정유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만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길이며 그것이 곧 최고의 품질로 고객과 사회에 만족을 준다는 회사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신 장비의 설치는 물론 전사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86년초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1993년까지는 대덕연구단지에서 호남정유종합연구소를 건립하여 회사전제품의 품질관리, 제품개발 등의 체계적 향상을 기할뿐 아니라 대체에너지와 신소재 등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다.

국가의 동력원인 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기업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공해없는 연료의 공급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좋은 석유 맑은 공기」 호남정유는 품질좋은 석유제품의 공급과 함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공해방지를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신식 폐수처리 시설인 공기 가압부상장치를 설치하여 폐수를 깨끗이 처리하고 있으며, 유해가스를 소각하는 지상 70m 높이의 폐가스 소각장치 등으로 공해방지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인에너지

1960년대 들어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 계획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67년 11월에 민간화력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화약산업으로 국내 기간 산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화그룹의 창업자 玄岩 金鍾喜 회장은 평소 국가 경제부흥을 선도하여 나날 에너지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집념을 지니고 있었기에 선풍 발전소 건설사업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34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되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 B-C유를 자기생산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유공장을 같이 건설한다는 것이 현암회장의 복안이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玄岩 회장이 선택한 회사가 Union Oil이었다.

1968년 3월 23일 한국화약과 유니온오일측간에 합작투자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 합작투자 계약에 대하여 마침내 4월 10일 정부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하였다. 허가조건은 B-C유나 나프타만을 생산하되, 화력 발전용으로 공급되는분을 제외한 B-C유 잔여량과 나프타 전량을 美國으로 수출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유니온오일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듬해인 1969년 2월 19일 인천시 북구 원창동, 석남동 및 울도 일대의 해안가 34만여평 대지 위에서 화력 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위한 기공식이 이뤄졌다.

이즈음 제2정유회사 설립으로 급증하는 석유수요에 대처했던 정부는 국내산업활동의 확장등으로 석유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자, 석유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때에 거론된 것이 경제기획원의 제3정유시설 건설안과 상공부의 기존업체시설 확장안이었다.

당시 발전소용 연료공급을 위해 1969년 9월 30일 5만배럴의 정유공장 사업허가를 이미 받아 놓았던 京仁에너지는 기존회사들보다 외국합작회사와의 운영협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의 입장을 강조, 정식 정유사업 인가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70년 들어 정부는 제3정유회사의 신설을 결정하고, 京仁에너지는 정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으며, 간이 정유공장 설립허가시의 전량수출

조건도 자연스럽게 해제됨으로써 명실공히 제3정유회사로서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1971년에 들어서는 공장 부대시설도 연이어 완공되기 시작하였다. 울도와 육지간을 연결하는 2,270미터의 해중도로 송유관은 1971년 1월에 완공되었으며, 2월에 들어서는 5만5천톤의 접안능력과 시간당 37,500배럴의 원유 하역능력을 갖춘 부두시설도 완공되었다. 3월에는 공장운전요원의 모집이 이루어져 2,000여명의 공개모집 응모자중에서 80여명이 선발되어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마침내 1972년 4월 17일 울도 발전소 운동장에서 정유공장과 발전소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단시간 수송등으로 극복하여 나갔다. 계열사로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이미 1971년 9월에 설립된 第三石油會社를 1972년 6월 14일자로 京仁에너지가 100%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생산, 판매의 일관된 체계를 확립하였다.

단시간 수송등으로 극복하여 나갔다. 그를 계열사로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이미 1971년 9월에 설립된 第三石油會社를 1972년 6월 14일자로 京仁에너지가 100%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생산, 판매의 일관된 체계를 확립하였다.

1973년 2월 1일로 1년간의 영업활동을 벌인 제삼석유의 활동을 보면, 하루평균 2천드럼의 각종 유류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서울, 경기지구의 29개 석유류 판매대리점 가운데 4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1년간의 짧은 활동으로는 매우 빠른 성장이었다.

그러나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1973년 제1차 석유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우리 경제는 국제 경제의 모든 불안요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서 이제 막 정유회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京仁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원유공급능력이 불충분한 독립계 석유회사인 유니온오일이 회사 소요원유의 전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에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공장은 정제시설능력을 지난 1972년 7월 30일에 日産 6만배럴 규모로 확장시켜 놓은 상태였으며, 1973년 11월에는 충청지방에 2개의 대리점을 확보하는 등,

영업판매망도 전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구축 완료되어 판매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974년 1월에 들어서는 정유공장의 평균가동률이 58% 수준으로 하루 평균 3만5천배럴 정도만을 생산하는 실정이었다.

京仁에너지의 창업자인 玄岩 金鍾喜회장의 급작스런 타개이후, 새로이 京仁에너지 사장으로 취임한 김승연 회장은 京仁에너지를 단순한 정유회사 차원에서 탈피하여 굴지의 종합에너지회사로 키우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金昇淵회장은 정제시설의 확장, 중질유 탈황·분해시설, 저장 시설등의 신규시설 투자의 필요성을 Unoco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美國내에서도 보수적 경영으로 이름난 유니온오일측은 金회장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커녕 이익금의 전액 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는 그들이 납입한 자본금의 4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들로서는 불확실한 해외정유사업에 신규투자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기존 투자비에 대한 과실송금만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金회장은 京仁에너지를 내국화시키고자 결정을 내렸다. 그후 내국화를 위한 몇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국화약은 매우 유리한 최종안을 관철시켰다.

1983년말로 본격적인 단독 경영체제를 갖춘 京仁에너지는 '90년대를 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가 해외유전개발 사업에의 참여였다. 석유위기 이후 원유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자체적인 원유도입선의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원유부터 정제, 판매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룬 종합 석유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1985년부터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1993년 현재 인도네시아, 알제리, 호주등 6개국 7개 광구에서 탐사와 시추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두번째가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유틸리티사업에도 참여했다. 거의 모든 유틸리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석유제품의 수요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세계유수의 석유회사인 영국의 BP사의 기술을 도입키로 결정한 京仁에너지는 1988년 8월 BP사와 정식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1989년 12월 4일 첫 생산을 시작한 京仁에너지의 유틸리티공장은 현대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특히 유틸리티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配合과정에 있어 무계정량을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조절하는 시설(PLC방식)을 국내 최초로 갖추었다.

세번째는 부산저유소의 건설이었다. 京仁에너지는 공장이 仁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판매에 있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적 편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남부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타정유사도 상대적 입장은 마찬가지였으나, 수도권지역 다음으로 다량 소비처인 부산, 영남지역의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京仁에너지는 부산에 저유소를 건설키로 하였다.

京仁에너지는 1985년에 확보해 두었던 부산시 동삼동 201번지 일대 22,450평의 부지위에 1987년 6월부터 총 34만배럴 규모의 부산저유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우선 1단계로 17만배럴의 저장시설이 1989년 7월 13일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시설의 건설도 계속진행되어 1993년에는 모두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 '7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허가까지 받아, 사업착수를 목전에 두고서, 예기치 않게 닥쳐온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하여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유공장 증설사업은, 198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에서 원유정제시설 증설공사 및 BTX생산시설에 대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서 金昇淵회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지금 이시간부터 경인에너지 제2의 창업을 선언한다』고 말하였다. 실로 故 玄岩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땅과 정열이 모여서 이룩된 京仁에너지의 20년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6만배럴의 정제시설이 27만5천배럴의 국제적 규모를 갖춘 대규모 공장으로서 탈바꿈 했을 뿐만 아니라 BTX생산을 계기로 유전개발, 정유, 석유화학에 이르는 회사로 변신하므로써 경인에너지는 종합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회사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겠다.

쌍용정유

쌍용정유의 창업은 그룹모체인 쌍용 양회의 시멘트 사업에서 출발했다.

당시만해도 시멘트사업은 제조원가의 55%를 에너지로 충당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업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1973년의 제1차 석유 위기는 쌍용양회의 조업중단이라는 위기로 파급되었고 이에 따라 독자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자구책을 강구하여야만 했다.

당시는 중화학 공업육성이 정부의 최대과제였고, 산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 4정유공장을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날로 격화되는 자원내셔널리즘의 와중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유국과의 직거래를 통한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산유국과 외교강화에 나설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은 2년여의 어려운 교섭끝에 이란의 국영석유회사(National Iranian Oil Company)와 50대50의 합작정유공장 건설에 합의, 1976년 1월 6일 한·이석유회사를 설립하였다. 그해 11월에는 NIOC와 직거래 방식에 의한 국내 최초의 민간차원 원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석유메이저를 완전히 배제한 석유의 직도입과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국가적 임무를 해결 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이자 세계 3번째로 수소첨가 개질공정을 갖춘 첨단 윤활기유공장을 병설함으로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합작회사를 설립한 쌍용은 정부측이 제시한 온산지역을 공장입지로 하고 공장설계 및 감리를 위해 포스터 휠러(Foster Wheeler)사를 주계약자로 선정, 일산 6만배럴의 원유정제 및 3,320배럴의 윤활기유 제조공장의 기공식이 1976년 12월에 거행됐다.

1977년 12월 보리스호에 실려온 최초의 건설기재가 울산항에 하역되고 현장에 반입되면서 각종 타워와 송유관이 나타나면서 공장의 실제모습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980년 5월 정유공정의 상업가동과 함께 11월에는 윤활기유 공정도 신제품생산에 들어감으로써 1981년 1월 6일 온산윤활정유공장은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다.

온산공장이 완성되기 전인 1979년 4월 이란에서 일어난 회교혁명으로 이란 정부가 해외투자자본 철수정책을 발표하자 NIOC측은 즉각적으로 쌍용과 체결한 기존의 합작사업계약과 장기원유공급계약의 파기를 시사했다. 그리하여 정부측의 양운세 동자부장관과 쌍용의 김석원회장, 이승원 한이석유사장 등은 이란을 방문, 쌍용과 NIOC간 체결했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는 정부차원의 합의각서를 교환, 1980년 6월 4일 마침내 이란측 소유주식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1973년 11월에 시작한 쌍용과 NIOC간 합작사업은 종지부를 찍고, 1980년 6월 28일 한이석유에서 쌍용정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으로써 총자본금 165억원의 순수민족자본에 의한 정유회사로 출범하게 되었다.

쌍용정유가 정상가동하기 전에 발생한 제2차 석유 위기는 1979년부터 지속된 원유가의 폭등으로 연결되어 국내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반 생산활동의 둔화, 탈석유정책에 따른 에너지의 대체, 석유소비절약운동으로 1980년에서 1982년까지 처음으로 석유수요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더욱이 쌍용정유가 가동됨에 따라 공급 과잉현상이 발생, 기존업체들은 쌍용정유의 시장침투를 방어하는 판매확대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후발업체인 쌍용정유는 불리한 조건과 시련속에서 시장개척을 해야만 했다. 또한 경제성 보완을 목표로 건설된 윤활기유시장까지 메이저의 덤핑공세로 판매가 부진하고, 대미달러의 환율폭등과 국제금리 불안정은 가동초기의 고정비와 금융비 부담으로 경영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쌍용은 이러한 악조건을 안정성장을 위한 체질개선의 계기로 활용하여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을 통해 이를 극복하였다. 외부적으로는 산유국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도입하고, 해외시장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해외 임가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동효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내적으로는 공장운전의 최적화를 이룩하여 수익성을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내적으로는 공장운전의 최적화를 이룩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생산과 수출을 극대화

시키는 등 내부 관리체계의 합리화에 주력하면서 착실하게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윤활기유 국제시장의 공급과잉이 몰고 온 메이저의 덤핑판매로 윤활기유시설 가동의 한계를 맞이하기도 했으나, 그 상황에서도 윤활기유의 자급체제 구축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개선에 주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같은 노력끝에 1985년부터 흑자경영을 실현하여 안정성장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1987년 5월에는 기업공개로 단행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쌍용정유는 당초 공장건설 허가시 휘발유 제조시설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큰 휘발유를 직접 생산하지 못한 관계로 주유소 등의 기존시장 침투에 어려움과 위탁제조를 통한 휘발유 공급으로 막대한 임가공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1984년 6월 온산공장 부지내에 나프타 탈황시설 및 접촉개질시설, LPG분리시설의 건설에 착수한 쌍용정유는 1985년 6월 공사를 완료하고 상업가동에 돌입하여 안정적인 휘발유 공급은 물론, 경영수지 및 타사와의 본격 경쟁에 나서게 됐다. 이와함께 LPG수급과 리포메이트 생산 및 기술축적 등으로 석유화학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명실상부한 정유회사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지역의 수요량을 예측, 그 지역에 적절한 공급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온산공장이 준공되었을 시에는 저유시설이 부족하여 인천의 타사 저유소를 임차, 서울 경기지역의 판매 활동에 임했다. 그러나 마케팅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인천시 항동에 저유소 건설을 착수했다. 착공 9개월만인 1982년 11월 인천저유소의 준공에 이어 각지역에 저유소가 건설되었다. 현재 부산, 마산, 목호, 광주, 전의, 임실, 여수, 군산, 시흥정유소와 공장의 저유용량으로 안정공급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쌍용정유는 국내 최초로 촉매를 이용, 중간유분에 수소를 첨가하여 탈황하는 수첨탈황공정을 갖추어 유향함량을 %단위에서 ppm단위로 끌어내렸다. 이러한 설비로 저공해 등·경유를 생산하여 가동 초기부터 환

경보전에 앞장서는 쌍용정유는 1985년이후 연평균 20% 이상의 석유류제품의 수요신장세에 맞추어 1990년 12월 10만B/D의 원유정제시설을 증설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로써 쌍용정유는 하루 32만5천배럴의 원유정제시설로 연간 1억배럴 이상의 석유제품을 생산,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존원유는 증질화되어 가는 한편 소비 수요는 경질화되는 등 국내외 석유류 수요구조의 변화와 환경보존에 대비, 쌍용정유는 변화하는 시대의 마케팅강화를 위해 증질유분해사업에 진출했다.

1991년 5월 세계최대의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사와 하루 8만5천배럴 처리규모의 증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건설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 6월 준공예정인 현재 온산공장에 새로 조성된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윤활유사업은 윤활기유 제조부문과 윤활유 완제품으로 구분된다. 1981년 수첨개질공법에 의한 윤활기유공장 건설로 국산화에 성공한 쌍용정유는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윤활기유의 자급체제를 구축하였다. 자체연구개발을 통한 공정개선으로 현재 7,000B/D 수준까지 생산이 가능해 지난 1989년 하반기에 실시된 정부의 수입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공급은 물론 해외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1,500B/D의 윤활유 배합시설을 갖추고 자체 기술개발로 개발한 고유상표인 「드래곤」을 시판, 엔진오일 내수시장에 진출하여 로얄티 절감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물론 윤활기술 토착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공업용 윤활유인 「쌍용다후니」를 개발함으로써 종합윤활유 메이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정유사업에서 짧은 기간내에 안정성장기반을 구축한 쌍용정유는 종합석유화학기업을 목표로 석유화학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 1991년 2월 BTX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기초유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연산 48만톤의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BTX관련제품의 계열화 및 증질유분해시설의 부산물을 이용한 MTBE, 폴리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제품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극동정유

1964년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극동정유는 그 모태가 되는 윤활유 생산·판매 회사인 극동정유공업(주)에서 태동하여 많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극동정유는 1988년 11월 충남서산에 6만B/D 규모의 상업 정제시설을, 다음해인 1989년 11월에는 3만4천B/D 규모의 중질유 분해시설을 갖춘 최첨단 정유공장을 가동하여 서해안시대와 경질유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극동정유의 모태인 극동정유공업(주)은 우리나라 윤활유 공급의 효시로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산업활동에 기여하였고,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공장건설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1960년에 출범한 윤활유 회사였다. 당시 윤활유 수급상태는 수입품 및 군수품의 암거래 및 폐유정제로 열악한 상태였다. 극동정유공업은 설비 시운전의 어려움과 초반 판매활동의 부진을 딛고 판매활동과 생산에 호조를 보이게 되었다.

윤활유 시장의 확대와 조유 조달의 어려움속에서 극동은 윤활기유, 연료유, 아스팔트 등의 본격적인 석유 정제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4년 11월 석유류 정제업 허가를 취득한 후, 회사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극동석유공업(주)이 탄생되었는데, 이 회사가 오늘날 극동정유주식회사의 전신인 것이다.

극동석유공업을 설립함으로써 극동은 본격적인 석유정제업에 진출하여 조유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원료면에서도 바로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 상업정제 3,000배럴, 감압정제 2,000배럴의 공장건설에 따라 조유가 국산화 되었고,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공장은 설계에서 시공까지 극동정유 자체기술과 노력으로 완공하였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극동석유공업이 창립된 1964년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6.3사태가 발생하는 등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으나, 경제면에서는 전력, 석탄, 시멘트 등 기간산업 분야가 확충되었으며 특히 수출실적이 1억 달러를 돌파한 기록을 남기는 등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한 중요한 한해였다. 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연료유등의 제품 생산을 개시하면서

열악한 제품 성상의 개선에 노력하면서 아스팔트 제품을 개발하여 1967년 이후 극동의 아스팔트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르렀다.

극동석유공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딛고 일대 도약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메이저인 로얄더치셀과 합작투자를 한 1968년도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에 해당하는 해였다. 이 당시 정부의 主油從炭 정책에 따라 석유수요가 급증되었고,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등이 잇따라 정유업에 진출하였다. '64년 설립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온 극동석유공업은 '68년에 와서 자본금 1억원, 연간 제품 생산 능력이 약 10만배럴에 이르는 중견 석유업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성과 윤활유시장의 고급화에 대처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합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극동은 합작선을 모색하던중 1968년 9월 한국진출의 기회를 노리던 셀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1969년 1월 극동셀석유(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셀과의 합작을 계기로 경영의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극동정유는 2만B/D 증설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업계의 반발로 좌절되었고, 단지 극동의 자체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시설의 증설에 만족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을 맛보기도 하였다. 고급윤활유의 생산 및 시설확장에 따라 판매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극동셀 판매회사(현재 세일석유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를 설립('73. 12)하여 대기업과의 경쟁에 대처하였다. 극동은 셀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당초의 목적인 시설의 대형화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자금운영면에서 안정을 찾았고 기술적 노하우와 함께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과학화」를 도모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한편 내부정책의 변화와 아시아에서의 과잉투자를 우려하였던 셀측과 극동은 증설문제로 이견을 보이게 되었고 셀사와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증설을 추진하려던 극동은 셀측의 50%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 지분은 현대그룹이 인수함으로써 현대그룹이 새로운 동반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77년 5월 극동석유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와서 정유사의 시설확장경쟁이 벌어지고 석유류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극동정유는 중·장기 경

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6만B/D 증설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1977년 8월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상압증류탑의 확장공사부터 착수하였다. 상압정제시설 10,000B/D, 감압증류시설 7,000B/D 등 신증설을 진행하였고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극동은 사업규모의 적정규모 미달의 문제로 고정비 및 운임부담이 가중되고 구매경쟁이 약화되었고 시장이 유탄기유, 아스팔트 중심에서 B-C유 등 연료유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연료유와의 끼워팔기 성행으로 유탄기유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등 창업 이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극동은 증설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으며, 1981년 1월 동자부로 부터 증설허가를 취득하였다.

제2차 석유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의 불황속에서 국내정유사들도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극동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1980년 장흥선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는 등 경영진과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여 60,000B/D 증설에 대비하였다. 또한 시설 및 원유도입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게티오일社와의 합작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60년대말부터 대규모의 시설확장을 시도하여왔던 극동정유는 유탄기유와 아스팔트 위주의 생산활동에서 벗어나 종합석유정제시설을 갖추어 본격적인 정유업체로 성장하려는 계획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극동은 1981년 1월 일반정제시설의 허가와 함께 1982년 7월 증질유 분해시설의 증설허가를 받았다. 증질유 분해시설의 건설은 석유류 소비의 경질화 추세에 대처하고 원유도입선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장점과 저유황유 공급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수지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의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高溫高壓의 가혹한 조건하에서 운전해야하므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이기도 하였다. 1984년 4월 공장 입지를 부산에서 충남 대산으로 변경하고,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등의 사전정지작업을 거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약 5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순차로 주공정시설, 유탄기유시설, 부대시설등을 건설하여 일반정제부문은 1988년

11월 증질유 분해시설은 1989년 11월 준공하여 대통령령의 참석하에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대산공장 준공으로 극동은 증질유분해시설의 호시가 되었으며, 정유산업의 현대화를 선도하였다. 공장부지의 매립, 준공까지 민간의 힘만으로 건설된 대산공장은 증질유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으로 서해안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산공장 건설중에 극동은 상호변경을 추진하여 1988년 8월 극동석유주식회사에서 극동정유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는 대산공장의 건설로 정제사업을 본격화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일반소비자들에게는 단순히 석유제품판매업이라는 인상을 피하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었다. 극동은 상호를 변경한데 이어 대산공장 준공을 계기로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환경」을 열여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6년 2월에는 인화, 창조, 성실, 봉사의 사훈을 제정하고 사가를 만들었다.

극동정유는 20여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산공장의 준공으로 응비의 나래를 막 펼치려고 하던중 뜻하지 않았던 1990년 2월의 대산공장 증질유분해시설의 화재와 이에 따른 재정난, 양대주주간의 불협화음으로 극동은 창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주주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합의와 임직원들의 결속된 역량으로 회사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극동은 공장위치가 수도권과 가까워 장기적 안목에서 유리하고, 증설에 대비하여 여유분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남들이 투자하지 않던 증질유 분해시설에 일찍 투자하여 준비하는 등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극동정유는 이미 유류소비증가에 대비하고 타정유사와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10만B/D 일반정제시설의 증설허가를 1989년에 취득하였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및 소득수준향상에 따른 경질유분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대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에서 석유화학 원료를 공급하고 범세계적인 환경규제강화추세에 부응하여 저유황유의 공급을 확대시키고자 상압증류시설, 나프타 개질시설, 등유·나프타·경유 수첨탈황시설, 가스회수시설의 추가증설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